

2023. 11. 16.(목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1월 16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

자치경찰총괄과장	홍 남 기	02-2133-9804
자치경찰정책팀장	박 재 형	02-2133-9816
담당자	강 민 준	02-2133-9818
관련 누리집	http://gov.seoul.go.kr/apc (알림마당 > 홍보자료)	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4쪽

서울 자치경찰위, 이상동기(무차별) 범죄 대응 시민행동요령 배포

- 잇따른 강력범죄 대응 위해 3단계 구성 ‘다다다(달린다→피한다→신고한다) 행동요령’ 제작
- 지자체·유관기관과 협조...지하철, 전광판 등에 행동요령 요약된 20초 분량 영상 송출
- 김학배 자치위원장, “시민들이 잠재적인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할 것”

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(이하 ‘서울 자경위’)는 잇따른 강력범죄로부터 시민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‘이상동기(무차별) 범죄 대응 행동요령’을 자치구와 경찰서를 통해 오는 11월 말부터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.

○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월 23일(수)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‘무차별범죄 대응 시·자치구 구청장회의’를 개최한 가운데 대응 방안의 하나로 범죄자와 마주친 상황에 대비한 시민행동요령을 시민들에게 배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.

서울 자경위는 최근 신림역, 서현역 등에서 발생한 이상동기(무차별)와 같은 범죄 발생 시 신속한 행동으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

체 최초로 시민행동요령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.

□ 다다다 행동요령의 주요 내용은 ▲1단계는 빠르게 현장에서 벗어나기 위해 달리고 ▲2단계는 달리기 어려우면 주변의 안전한 장소로 피한다 ▲3단계는 안전이 확보되면 112, 119에 전화 또는 문자로 신고하는 것 등으로 위험한 상황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행동할 수 있는 ‘달린다→피한다→신고한다’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.

○ 서울의 ‘다다다 행동요령’은 영국, 프랑스, 미국 등 해외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테러 대응 행동지침을 참고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재구성되었다.

※ 영국은 3단계 테러대응 시민행동요령으로 ‘RUN-HIDE-TELL’을 사용하고 있음

□ 시는 다다다 행동요령 적용이 불가능할 긴급한 경우의 대처방안으로 ▲개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주변에 있는 가구(의자·탁자), 소지품(가방·책) 등을 활용한 방어 ▲소화기 분사, 뜨거운 음료 뿌리기 등 일시적으로 범인의 행동 불능을 유도할 수 있도록 주변 사물을 활용해 막는 방법을 제시했다.

○ 소화기 분사 등 긴급 행동요령의 일례로는 2019년 런던에서 발생한 흥기 습격 사례가 있다. 당시 시민들은 주변에 있던 소화기와 조각품을 사용해 공격을 막아 긴급한 상황에서 벗어났고 범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.

□ 소책자(리플릿) 형태로 제작된 ‘다다다 행동요령’은 자치구, 경찰서를 통해 이달 말부터 배포될 계획이며, 시민 누구나 서울 자경위 누리집 (gov.seoul.go.kr/apc)을 통해 전자책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.

- 시는 지자체와 유관기관과도 협조해 지하철, 전광판 등에 다다다 행동요령이 요약된 20초 분량의 영상을 송출하는 등 시민들이 해당 내용을 자주 접해 행동요령을 익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.

- 한편, 서울시는 지난 11월 7일(화)에 일상생활 속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을 강화하고자 긴급상황에서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, 경찰 자동 신고 기능도 갖춘 휴대용 SOS 비상벨 ‘지키미’를 12월 말부터 보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.
 - ‘휴대용 SOS 비상벨’은 ‘안심 경보기’와 함께 한 세트로 구성되며, 성폭력·가정폭력·교제폭력·스토킹 등 범죄피해자 및 피해 우려자 1만 명에게 우선 지급된다.

-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“긴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‘다다다 행동요령’으로 잠재적인 위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.”라고 하면서, “강력범죄가 사회의 안전을 흔들지 못하도록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과 시민이 함께하는 협력 치안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추진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이상동기(무차별) 범죄 대응
다다다 행동요령

**위험한
상황이면**



달린다

- 빠르게 현장에서 벗어나기
- 손들고 크게 소리치며 주위에 알리기

**달리기
어려우면**



피한다

- 주변 편의점, 식당 등 안전한 장소로 피하기
- 문을 잠그거나 무거운 물체로 출입구 막기

**안전이
확보되면**



신고한다

- 112·119 신고하기 (통화 불가 시 문자신고)
- 현장 위치, 현재 상황, 범인 특징 알려주기

다다다 행동 불가시 막는다

달리거나 피할 수 없는 긴급상황의 경우
개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주변 모든 사물을
사용하여 막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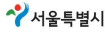

2019년 원뿔에서 발생한 흉기 습격에
시민이 주변에 있던 소화기와 조각품으로
공격을 막아낸 사례가 있다.

행동요령

- 가구(의자·탁자), 소화품(가방·책),
주변 사물(화분·소화기)을 던지거나 휘두르기
- 소화기 분사, 뜨거운 음료 등을 뿌려 범인 행동불능 유도



(소책자 내지)

다

다

다

서울 자치경찰은


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'생활안전', '사회적 약자 보호', '교통·경비' 치안을 담당하고, 서울의 치안 수요와 주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서울 맞춤형 치안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

생활안전
순찰·방법
긴급 구조
아동·청소년·여성·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

교통분야
법규 위반 단속
교통안전시설 심의·설치
안전교육
각종 허가·신고

지역경비
다중이용행사 안전 및 교통관리

연락처 02-120
누리집 gov.seoul.go.kr/apc
인스타그램 @seoul_apc



**이상동기(무차별) 범죄 대응
행동요령**

(소책자 표지)